

건협의 향후 발전 계획



전 무근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64년, 당시 국민 건강에 있어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였던 기생충의 박멸을 위해 한국기생충박멸협회로 설립된 이래 30년 동안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커다란 목표 아래서 국가 보건 정책에 따른 다양한 보건사업을 전개해 왔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건협의 30년 역사는 바로 우리의 보건의료의 발전과 변환 과정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15해방과 6.25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낙후될대로 낙후된 보건 의료의 상황은 당시 국가

보건정책 입안 및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다.

당시 보건 상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급성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보건정책 역시 전염병의 치료, 예방, 방역 사업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시행되었다. 이때 전염병의 주 전염원이었던 쥐·위생곤충 등의 박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전 국민에게 만연했던 기생충 박멸의 필요성이 학계 및 보건의료계에서 제기되어 마침내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1964년 4월에 창립되었다. 이후 기협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공익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굳은 신념 아래서 기생충 박멸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창립 당시 90% 이상을 상회하던 기생충 감염률은, '71년 84.3%, '76년 63.2%, '81년 41.1%, '86년 12.9%, '92년 3.8%로 격감되어(제1차~5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 결과), 국민 건강의 수준 향상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는 기생충관리 정책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은 국민들의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 습관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질병의 양상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즉, 각종 전염성 질환, 기생충의 발병률은 감소한 반면에 비전염성 만성 퇴행성 질환(성인병)이 급증하여 현대인 사망 원인의 으뜸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질병 양상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 정책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부는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 체육 시설 및 공단 등의 확충, 국민건강생활지침 제정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기협은, 기생충관리사업의 성공적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많은 경험과 우수한 시설·장비·전문 인력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82년 4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설립하고 정부의 보건사업을 대행토록 했다.

기협은 창립 이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사·보건계몽·조사연구 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하기 시작해 건강관리사

업의 선두 주자로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건강검진”이라는 용어라든가 “종합검사”, “종합검진”, “정기검사” 등의 용어도 '80년대 초기부터 건협이 처음 사용한 전문 용어으로써 이제는 보편화되어 누구나 사용하는 일상적인 관용어가 되어 버렸다.

또 건강검사 실적 측면에서도, '83년 77만여건에 불과했던 검사 건수가 '84년에는 201만여건에 연 인원 87만여명으로 늘어났으며 10여년이 지난 '93년에는 1,033만여건의 검사건수에 연 인원 393만여명으로 대폭 신장되어 국민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협은 '86년 기협으로의 흡수·통합,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명칭 변경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 건강검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하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건협이 과연 검사 전문기관으로서만 존재해야 하는가, 즉 국민들을 검사만 하고 치료는 병·의원에 알선해 주는 역할에만 치중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제시되기도 한다.

과연 이것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보다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건강관리인가를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비전염성 만성 퇴행성 질환의 특성으로 볼 때, 질병 발생 이후의 조치보다는 발생 이전에 일상 생활에서의 예방이 더욱



건협의 이념사업도

이제는

보건 의식 개혁, 영양개선,
건강생활실천등의
적극적 방법.

즉 예방사업을 통한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어야 한다.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이 올바른 보건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 의료의 구조는 질병의 치료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최근들어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건강 정보 중에는 단편적이거나 근거가 불분명한 것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부 건강식품이나 의약품의 경우에는 과대 광고가 범람하여 이들 식품이나 의약을 선호하거나 과신함으로써 피해와 부작용을 겪는 등 올바른 건강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궁극적이고 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건강관리방법으로부터 탈피하여 질병의 예방을 위한 습관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방법을 모색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건협의 이념 사업도 이제는 질병의 조기발견·조기치료를 통한 건강

관리라는 소극적 방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건 의식 개혁, 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 등의 적극적 방법 즉, 예방사업을 통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건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 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 보건교육, 계몽 및 홍보를 통한 보건 예방사업,

2) 건강증진 자료의 개발을 위한 학술조사연구,

3) 각종 성인병의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

등을 실시하여 국민보건증진에 관한 정부 보건사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보건 의식 고취를 위한 보건계몽사업으로는 지역주민 대상의 건강관리 공개강좌·강연회 및 좌담회 등의 집단 보건교육, 언론매체를 이용한 건강정보 전달, 계몽용 소책자와 유인물 제작, 각종 건강정



보를 담은 월간지 건강소식 발행 등이 있다.

또한 매년 4월 보건의 달에는 건강관리 강조주간을 설정하고 가두 무료 검진과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건강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관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언론인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언론인 초청 간담회, 각 지역의 보건교육담당자와 유관 단체 보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담당자 교육도 매년 실시해, 이들로 하여금 전달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협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각종 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즉 전문 검사요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도관리를 위한 검사기술 지도 연수교육, 최신 검사 장비의 도입, 새로운 검사 항목 개발, 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 성인병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 기생충 및 흡충류 감염 실태조사 등과 함께 그동안 쌓아 온 건강관리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한 다양한 학술 조사연구 등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또한 건협은 정부에서도 중점 사업으로 계획·추진하고 있는 AIDS 상담 및 검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IDS 감염 예방 계몽 및 상담을 위한 상담전용 전화를 가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AIDS 검사도 실시하여, 최근에는 부산지부에서 항체양성자를 발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건협이 가장 중점을 두고 실시

해 온 사업은 역시 건강검사사업이었다. 건강인을 대상으로 각종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종합 건강 검사와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 공무원·교직원 및 피부양자 건강진단, 의료보험조합원 및 피부양자 건강진단, 특수업태부 대상의 성병검사, 저소득층 주민 무료검사, 노인건강검사 등의 집단 검사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의 혜택이 부족한 산간벽지 주민들과 사업장 근로자 등을 위해 최신 의료장비가 장착된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한 현지 출장 검사도 실시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건강검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 건협은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성공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의 사업에 참고하기 위한 국제학술교류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 30여년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오며 따라 대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동안의 건협의 사업은 건강검사사업에 그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보다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건강관리, 즉 국민 보건의식 개선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동안의 사업 방향에 대한 냉철한 판단에 입각하여 보다 진정한



**건협이 특히
 중점을 두고 구상하는
 것은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검사 등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예방사업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의미에서의 건강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실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잘못된 보건지식을 바로 잡는 일과 국민들의 보건의식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제가 해결된다면 올바른 건강생활을 통한 질병 발생 이전의 예방 및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보건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올바른 건강 지식을 가지고 모든 생활이 곧 건강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건협 사업도 이 보건교육에 초점을 두고 계획·수행될 것이다.

즉 범국민적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 하도록 할 것이며, 지역별·연령별·계층별로 적절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순회 강좌 등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관리 공개 강좌의 확대, 언론매체를 이용한 건

강관련 공익방송 실시, 건강 관련 자료 개발 확대, 건강계몽 캠페인 전개 등에 주력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협회가 중점을 두고 실시해야 할 것은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연구사업의 실시이다.

선진국 보건의료계의 발전된 기술 및 운영 체계를 도입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해야 할 것이며, 그 동안의 건강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술적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척도를 가늠하고 새로운 검진 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보건교육자료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협은 그 동안 우리 협회가 쌓은 경험과 기술을 후진국에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교류 사업의 새로운 방향도 모색할 것이며, 건협이 실시한 건강검사 실적과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과학적 데이터를 만들어내어 집대성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 전개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건협이 보건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과 함께 특히 중점을 두고 구상하는 것은 수익금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사회 환원 사업이다. 즉 저소득층 주민이나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산간오지나 도서벽지 주민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검사, 노인 건강 검사 등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보건예방사업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건협은 또한, 질적으로 보다 우수한 건강검사 혜택을 국민들에게 베풀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손대지 못한 신규 검사 종류의 확대에도 주력할 것이며, 이에 따른 최신 검사 장비를 도입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연령별·계층별·성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검진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며 과학적인 평생 건강관리 체계 실현 및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건협은 그외에도 특수 기생충 검사, 토양검사 등 기생충관리사업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세계의 보건 의료의 흐름은, “2000년대에는 전 인류의 건강 보장”이라는 슬로건 하에 각국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건협은
연령별·계층별·성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검진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며 과학적인
평생건강관리 체계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건강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이다.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많은 국민들이 각종 보건의료시설을 통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다 우수한 보건의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올바른 보건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법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건협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동안 국민건강을 위한 다양한 건강검사사업, 보건계몽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전개해 오면서 전국적인 조직망과 우수한 검사시설, 많은 경험을 토대로 축적해 온 건협은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예방사업의 중심기관으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창립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건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협회 발전을 위해 또 한번의 도약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